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미 현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미 현

# 인 준 서

김미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는 혼전 동거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생 혼전 동거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593명으로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낭만적 성인 애착 척도, 성태도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 만족 척도, 사랑 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t$  검증,  $\chi^2$ 검증, 상관 분석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사랑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사랑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성인 애착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성인애착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동거에 허용적인 집단이 동거에 비 허용적인 집단에 비해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 동거에 대한 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서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3
1. 혼전 동거의 정의 및 특성	3
2. 대학생 혼전 동거	4
1)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이유	4
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이유	5
3) 대학생 동거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점들	6
3. 사랑유형	7
4. 성인애착	10
1) 성인애착의 개념 및 유형	10
2) 성인기 애착과 사랑	13
5. 성에 대한 태도	14
6. 사랑유형, 성인애착, 성태도, 부모 결혼 만족도와 대학생의 혼전 동거와의 관계	15

<b>Ⅲ. 연구 문제</b> .....	17
1. 연구 1. 한국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동거 경험자들의 심리적 특성 .....	17
2. 연구 2. 대학생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	18
<b>Ⅳ. 연구 방법</b> .....	19
1. 연구 대상 .....	19
2. 측정 도구 .....	21
3. 자료의 분석 .....	25
<b>Ⅴ. 연구 결과 I</b> .....	26
1.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 .....	26
1)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 간의 사랑유형 .....	26
2) 동거 횟수 및 동거 기간 .....	27
3)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체 기간 .....	28
4) 동거 의향 .....	29
2.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 .....	30
1) 동거 경험 집단과 비 경험 집단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	30
2)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비 경험 집단에 따른 성인애착 차이 .....	31
3)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비 경험 집단 집단에 따른 성태도 차이 .....	32

VI. 연구 결과 II .....	33
1.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	33
2.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	34
1) 동거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 .....	34
2)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 .....	35
3)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 만족도와 동거에 대한 태도 .....	35
VII. 논의 및 제언 .....	36
1. 결과 논의 .....	36
2. 제언 .....	43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 인구통계학적 변인 .....	19
[표 2 ] 성인애착 척도 .....	22
[표 3 ]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	24
[표 4 ]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	26
[표 5 ] 동거 횟수 및 동거 기간 .....	28
[표 6 ]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체 기간 .....	29
[표 7 ]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사랑유형 .....	31
[표 8 ]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인애착 .....	32
[표 9 ]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 차이 .....	32
[표 10] 동거 의향에 따른 이유 .....	33
[표 11] 동거 반대집단과 동거 찬성집단간의 성태도 차이 .....	34
[표 12]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 .....	35
[표 13] 동거에 대한 태도와 부모 결혼 만족도 .....	3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동거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 또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두 남녀가 결혼 할 여건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결혼의 한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 가정사역연구소(2002)의 동거연구에서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53%) 반대하는 사람(47%)을 앞질렀으며, “혼전 동거 괜찮다.”라고 응답한 10대들이 54%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남식의 연구에서는 62%에 달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동거하는 커플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허은주의 연구에서 동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2.4%였던 반면, 2005년 우남식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5.7%가 동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솔직히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동거를 경험한 대학생의 수는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학가 주변을 살펴보면 동거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굳이 동거촌이 아니더라도 임대료에서 동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송정아, 2007). 심지어 동거는 연인끼리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대학 주변에 함께 자취할 남자와 여자를 찾는 광고와 인터넷으로 조건에 맞는 동거 파트너를 구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시절의 이성과의 동거는 그들이 초기 성인기의 발달 단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시기의 이성과의 교제 경험 및 관계는 이후 결혼 생활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Lewis & Spanier,1979). 특히, 동거 경험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며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갖게 한다(William G.

Axinn & Jennifer S. Barber, 1997). 또한 동거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은 많지 않다. 70%가 동거 그 자체로 끝나며 동거기간은 평균적으로 1.3년 동안 지속된다(Bumpass & Sweet,1991). 동거 후 결혼을 한 경우에도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 한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절반 이상 높다(Clarksberg et al., 1995;Cunningham & Antill, 1994; Liefboer & de Jong Gierveld, 1993; U.S. Bureau of the Census, 1996).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혼전 동거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동거로 인한 정체감 상실, 다른 친구들과의 활동의 제약, 과도한 의존성 등 몰입(overinvolvement)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문제(Macklin, 1972)와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우울감 증가와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Horwitz & White, 1998).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대학생 커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 보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가장 큰 이유이다(허은주, 2004; 우남식, 2005; Macklin, 1972). 또한 경제적인 합리성과 데이트 하는 과정에서의 편리성 역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다(조선일보, 2007. 7. 21). 이처럼 해마다 동거하는 커플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상가와 관계학자들이 이 인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umpass & Lu, 2000). 그러나 국내에서 동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동거 양상과 심리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향후 건강한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혼전 동거의 정의 및 특성

#### 1) 혼전 동거의 정의 및 기간

‘동거’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민중 엡센스 국어사전)라고 진술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동거의 정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한때 이성간 연인들이 결혼으로 지나가는 길(path)의 한 부분으로서 보았지만, 연구자들은 이제 동거를 정식의 한 연합(a formal union)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anning, 2001; Seltzer, 2000; Smock, 2000). 결혼과 비슷하게 동거는 종종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다. 사는 공간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정립한다(Brown & Brooth, 1996). 이처럼 어떤 내용에서는 결혼과 매우 흡사한 상태이지만, 결혼 관계 보다 확실성이 덜한 관계이다(Bumpass, Sweet, & Cherlin, 1991). 약 절반 정도의 동거자들의 동거 관계는 2년 안에 결혼으로든 헤어지는 것 이로든 끝이 난다(Brown & Brooth, 1996).

#### 2) 혼전 동거의 유형

Jenkins(2002)는 동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는 일시적 또는 캐주얼(casual)동거로서 서로의 편이를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동거이다. 둘째 유형은 준비 또는 시험 결혼 (trial for marriage)으로서 결혼 생활을 미리 시험해 보는 것이다. 셋째 유형은 결혼 대안 (substitute for marriage)으로서 결혼의 진정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법적인 결혼을 거부하면서 사는 유형이다. 송정아(2007)는 자신의 연구에서 동거유형을 5가

지로 좀 더 세분화하여 보고 있다. 첫째는 애정형 동거 유형을 이는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다는 사유로 동거하는 경우이다.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적당하지 않거나 현재 신분 또는 결혼의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결혼은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는 경제형 동거 유형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하며 동거 선호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에 동거 목적이 있다. 학교 주변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은 방을 같이 쓰면서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지출을 줄인다. 또 연인과 데이트 할 때 비용뿐 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시험 유형의 동거이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 전 동거로서 현재 사랑하는 상대와의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미리 살아보면서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방식, 능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동거 형태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은하고 싶지만 요즘 높은 이혼율로 인하여 불안한 커플들의 결혼 예행 연습의 동거 형태다. 넷째는 혼인신고 기피 동거 유형이다. 진정한 결혼 관계를 갖고 있지만, 법적인 결혼을 거부하면서 한다. 이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혼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게 함에 따라 동거상태가 된다. 다섯째는 계약형 동거 유형으로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이다. 서로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조건 아래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동거하는 형태이다.

## 2. 대학생 혼전 동거

### 1) 대학생들의 동거 이유

Macklin(1972)이 Cornell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동거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찾고자 하고 피상적인 '데이트 게임'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큰 대학교에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결혼제도의 의문이 확산되어 있고 영속적인 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의 개인적인 성숙이 확실해 지기 전까지 헌신 및 결심을 미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일찍 성숙하는데 결혼까지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커뮤니티가 동거를 인정하고 쉽게 하도록 한다. 동료 그룹의 지지와 충분한 기회가 있고,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고자 한다면, 커플들이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실제로 동거하는 개인적인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함께 사는 즐거움과 편의의 혼합이라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밤에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너무 멀고 돈이 적게 드는 것 등. 때때로 이성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 혹은 관계를 시험에 보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기도 했으나 이것만이 목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실제로, 초기에 함께 사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다수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동거로 이동한다. 일반적 패턴은 하룻밤 머무르고, 몇 주간 주말에 함께 머무르며, 또 다른 몇 주간은 주중까지 함께 보낸다. 그 후 또 몇 주 주중 및 주말을 함께 하다 동거로 이어진다. 절반 가량의 커플이 4개월 간의 데이트 이후에 일주일에 4박 이상을 함께 지내기 시작한다. 동거의 결정에 대한 의식적인 숙고를 할 때는 대부분 외부적 요인이 생길 때이다. 예를 들면 여름이나 가을계획을 세우거나, 졸업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임신이 했을 때, 집이나 방을 바꾸어야 할 때 등이다. 이런 외부적 요인이 없으면 종종 의논 없이 상호적으로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의 인식으로써 관계의 자연스런 진행과정이 된다(Macklin, 1972).

## 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동거이유

동거를 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동거는 합법적인 결혼 보다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선택하는 형태이다(김태현,1994). 2004년 허은주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거를 경험한 남학생은 사랑해서(46.2%),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서(30.8%), 혼자 있기 싫어서(15.4%), 어차피 결혼 할 사이이기 때문에(7.7%) 순이었고, 여학생은 사랑해서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각각(28.6%)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기 싫어서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애가 각각(14.4%)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8.6%로 동거의 동기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대학생 동거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점들

Macklin(1972)은 동거로 인한 문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정서적 문제, 성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되어 지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정서적 문제로는 동거로 인한 정체감 상실, 다른 친구들과의 활동의 제약, 과도한 의존성 등 몰입(overinvolvement)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되어지는 느낌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파트너의 다른 활동 참가에 대한 질투심, 갇힌 것 같은 느낌, 죄책감등도 보고가 되었다. 성적 문제로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사생활의 침해 및 적절한 공간의 부족 등의 삶에서의 문제들도 나타났다. William G. Axinn and Jennifer S. Barber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18세부터 23세)의 혼전 동거 경험이 다른 혼전의 독립된 주거 독립(기숙사나 아파트에서 혼자 혹은 동성의 룸메이트와 사는 유형)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역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만든다.

### 3. 사랑 유형

#### 1) 사랑 유형

사랑에 대해 Fromm(1956), Maslow(1954), Sternberg(1986), Lee(1988) 등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여 왔다. 그 중 Sternberg와 Lee는 보다 체계적으로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Sternberg(1986)는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사랑의 삼각이론을 주장하였다. 친밀감은 누군가와 가깝고, 연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사랑 할 때 경험하는 따뜻함과 같은 느낌들이 포함된다. 열정은 신체적 매력, 성적욕망을 포함하는 사랑의 동기 유발적 요소이다.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심과 책임감으로 구성되는 인지적 요소이다. Sternberg는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기초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구성해 8가지의 사랑유형-사랑이 아닌 것, 좋아함, 도취성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체 없는 사랑, 성숙한 사랑-을 제시하였다.

Lee(1988)는 사랑을 다양한 색깔에 비유하여 ‘기본색’과 ‘이차색’이라는 틀을 통해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사랑의 기본 색을 ‘에로스’, ‘루두스’, ‘스트로게’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조합에 따른 이차색으로 ‘매니아’, ‘프래그마’, ‘아가페’로 구분하여 총 6가지의 사랑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에로스(eros)는 첫 눈에 반하는 낭만적 사랑이나 신체적 매력에 강하게 이끌리는 열정적 사랑으로 강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이다. 에로스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들은 신체적인 매력에 잘 이끌리고, 사랑의 속도가 빠르고 강력하며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랑을 잘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사진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루두스(ludus)는 유희적 사랑으로 한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나 헌신을 거부하고, 사랑을 즐기기 위한 일종의 게임 또는 놀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서적 몰입이 적은 사랑을 해 언제든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여러명의 대상과 만나기도 하고, 상대가 질투하는 것을 싫어하며 파트너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만나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성(sex)은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며, 결혼과 같은 미래의 계획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이 그저 평범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종종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스트로게(stroge)는 우애적 사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르익는 사랑을 의미한다. 에로스와는 달리 신체적인 이상형이 없어 의도적으로 상대를 고르고 첫 눈에 반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사랑하게 되는,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사랑을 추구한다. 이들은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감정 표현을 꺼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 협조하고 보충하여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프래그마는 스토르계와 루두스가 결합한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이다. 스토르계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와 서로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지닌 상대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루두스적인 특징을 활용해 적절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즉,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추구하지만, 이는 분별력 있게 스토르계식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지, 황홀한 로맨스나 가슴 설레는 연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상황, 이를테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파트너를 찾고 상

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현신이나 미래 같은 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프래그마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시절과 현재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노력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매니아(mania)는 두 개의 기본적인 사랑, 에로스와 루두스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유적 사랑으로 극도의 의존성과 강한 질투가 특징이다. 매니아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항상 필요하고, 항상 상대방부터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이들은 에로스 적인 특징으로 인해 강력하면서도 육체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지만, 거의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가려내고, 이상형을 찾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루두스적인 특징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도 하지만 상대방부터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에 냉정하게 처신할 수 없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의 자극과 모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어린시절을 불행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대체로 외로워하고 종종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에로스와 스토르게가 결합해 아무런 조건 없이 좋아하고 돌봐주며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의무적이며 베풀다는 의미에서 스토르게식 사랑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적인 방식을 취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느끼며, 파트너는 그러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단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 중의 한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자신의 시간과 정열의 아주 적은 몫을 할애한다. 이들은 파트너가,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고 행복하다고 생각되면 파트너를 위해 기꺼이 그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Lee(1988)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 유형의 사랑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사랑 유형이 평생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4. 성인애착

##### 1) 성인애착의 개념 및 유형

성인애착이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생애초기 애착경험 및 이후 대인관계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형으로부터 통제된다. 대다수의 성인 애착 연구들은 Bowlby가 애착과정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고 제시한 개념에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가정과 유아와 성인 애착 유형 분포비율이 유사하는 발견에 근거하고 있다.

Main과 Goldwyn(1985)이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도구를 개발하여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에 초점을 두어 애착 유형을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독립적으로 Hazan과 Shaver(1987)가 성인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개발과 Ainsworth(1989)의 성인애착분류의 측정도구 개발 등으로 인해서 성인기 애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Hazan과 Shaver 낭만적 연애 관계를 중심으로 안정, 불안, 회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이 척도는 강제선택형의 범주형 척도로서 응답자들은 일부 내용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진술문 전체를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선택해야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적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인 애착 척도 (Adult Attachment Scale: AAS)라고 불리는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밀, 의존, 불안의 세 가지 성인애착 유형으로 나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의존 하위척도는 중요한 타인이 의존 가능한지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밀 하위척도는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 하위척도는 사람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의 개념에 기초하여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아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아(긍정적인 자아개념) 혹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아(부정적인 자아개념)로 이분되고,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신뢰할 만하고, 자신을 보살펴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과 거부적이고, 보살펴주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는 타인으로 이분된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부정적 표상,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과 부정적 표상이 조합하여 안정형, 몰두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성인 애착 모델을 개념화 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관계질문지 (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개발하였다.

1998년 Brennan, Clark과 Shaver는 60개의 애착 관련 질문지(323문항)를 모아 메타분석을 통해 2개의 하위척도(각18문항)로 구성된 ECRS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Bartholomew의 애착 4범주 유형의 수직과 수평축을 구성하는 자기모형과 타인모형의 요인이 각각 애착관련 불안과 애착관련 회피로 규정하였고 이는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각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집

단별 특성을 역동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모형과 타인모형이 모두 긍정적이면 타인에 대한 불안과 외피가 모두 낮고 안정적이 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처한다. 자기모형은 긍정적이어서 자신에 대한 불안은 낮지만, 타인모형은 부정적이어서 타인을 회피하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와 감정적인 개입을 피한다. 또한 자기모형은 부정적이어서 자신에 대한 불안이 높은 반면, 타인모형이 긍정적이어서 타인에게 다가가려는 사람은 몰두형으로 문제를 자기 탓으로 보고 감정적으로 과잉해석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모형과 타인모형 모두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불안도 높고 타인에 대해서도 회피적이어서 타인을 두려워한다(이명선, 2003).

김광은(2004)은 안정된 성인애착 유형은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자신감이 가장 높았으며, 여러 성격 특성 중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 면에서 불안정한 애착 유형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들은 신경증적인 경향인 정신장애적 경향, 그리고 반사회적 경향도 낮게 나타났다. 안정된 애착유형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불안정한 유형들보다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해결 중심으로 대처하였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유형(거부, 몰두, 두려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안정형에 비해 자신감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신경증적 성향이나 정신 장애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유연하고 복잡한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 및 정서경험에서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역에 따라 효능감이 높아 적응적인 대처양식을 보인다(Hazan & Shaver, 1987).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에 투입되는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다(Collins & Read, 1994). 이는 불안정 애착의 정신적 모델인 불안정성(bad-destiny)에 따라서 애착유

형에 따른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 양상, 혹은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그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고한다.

## 2) 성인기 애착과 사랑

성인 애착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Hazan & Shaver(1987)는 성인기의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영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발달된 애착유형에 기초한다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인기의 사랑을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을 최근까지 발표하고 있는데 개인의 애착유형 및 파트너와의 애착유형 조합에 따라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Hazan & Shaver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기초한 사랑을 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유형(불안/양가적,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파트너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강박 관념적으로 몰입하는 사랑을 한다. 이는 Simpson(1990)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Simpson이 데이트 중인 커플 144쌍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안정적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데이트 관계에서 더 많이 상호의존하고 전념하며 상대방을 신뢰할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만족스럽다고 지각한다.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이나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관계에 덜 만족하고, 서로 덜 신뢰함으로써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이나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데이트 상대에게 집착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관계에 있어서도 더 계산적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즐기지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성인기의 애착은 개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랑 양식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 5. 성에 대한 태도

‘태도’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아에 대한 사회 인지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Markus & Worf, 1987).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관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 중 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자기 태도나 관점을 성태도 라고 한다. 강희경(1992)은 성태도란 성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외한 내면적인 마음가짐만을 뜻하는 것으로 몸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태도, 성교육, 성윤리에 관한 태도 등을 말하였다. 즉, 성에 대해 갖게 되는 이념, 지각, 성향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태도는 극히 다양하여 이를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로서 이것은 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결혼을 기반으로 한 성행위만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즉, 성을 부끄러운 것,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는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로서 이 경우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애정이다. 비록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애정만 있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태도로서 성을 낭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이것은 기존의 관습이나 태도보다도 개인의 자유의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반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이다. 그 주된 신념을 성행동이 자유롭게 허용될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더 증대되고 긴장, 불안, 좌절이 줄어든

다고 본다(안덕순 외, 1984).

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혼전 순결,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의 순결 위주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성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 6. 사랑유형, 성인애착, 성 태도, 부모 결혼 만족도와 대학생 동거와의 관계

Sternberg(1986)는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사랑의 삼각이론을 주장하였다. Lee의 사랑 유형 측정에서 역시 Sternberg와 마찬가지로 ‘헌신’을 측정하는 영역이 포함되며 완전한 사랑에 있어서 헌신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대학생 동거 커플의 관계에서는 결혼 한 커플에 비해 헌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Johson, 1973). 따라서 동거 커플의 사랑유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Johnson의 사랑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헌신이 요소가 낮으므로 사랑유형 역시 헌신의 점수가 낮은 루두스 유형에 근접할 것이다.

또한 사랑유형과 성인 애착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다(Hazan & Shaver,1987 ; Simpson,1990 ; 장휘숙,2002). Hazan & Shaver(1987)가 청소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이성 교제의 특성을 성인 애착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래, 성인 애착은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인애착과 결혼 만족도, 관계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거 커플이 결혼 한 커플에 비해 관계의 질이 나쁘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거 연구와 모순된 결과가 많이 있으며, 특히 결혼할 것이라는 커플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풍토에 해당하며 대부분 결혼 할 것을 전제한 커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재 한국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들은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은 사회적 가치가 혼전 성관계를 더 승인하고 과거 세대에 비해 비전통적인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Amato, 1996; Hetherington et al.,1998; Kozuch&Cooney, 1995). 또한, 성 역할에서 더욱 자유롭고(Denmark, Shaw, & Ciali, 1985), 성과 육아에 관해 덜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DeMaris & MacDonald, 1993). 동거하는 사람들의 경우 동거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성 관계를 시작했으며 더 많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Clayton & Voss, 1977). 같은 맥락에서 동거에 대해 찬성한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성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자유로웠으며 결혼과 성 역할에 대해서도 비전통적이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역시 동거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가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이기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중, 고등 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Clarkberg, Stolzenberg & Waite, 1995)에 따르면, 부모의 결혼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문제

####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대학생들을 토대로 한 동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동거 경험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 한다. 연구 2에서는 이성간의 대학생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연구1과 2를 통해 동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과 동거 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 1. 한국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동거 경험자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 대학생들을 토대로 동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 실태와 혼전 동거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동거 전 교제 기간, 동거 기간, 동거를 한 이유,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 가설 1. 대학생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의 사랑유형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대학생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의 성인 애착 유형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대학생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의 성태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 2. 대학생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1. 동거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동거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의 성 태도는 동거에 반대하는 대학생의 성태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동거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 만족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 하였다. 2008년 2학기 열린 사이버 대학교(OCU)의 인터넷 수강 과목인 성행동의 심리학 수강자 대상으로 하여 총 337명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고, 연구자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가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8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사례수(N=593)	%
성    별	남성	258	43.5
	여성	335	56.5
연    령	만 18세~20세	237	40.1
	만 21세~24세	266	44.9
	만 25세~29세	87	14.7
	만 30세 이상	3	0.5
결혼 상태 (부모)	혼인 후 지속	532	89.7
	이혼	29	4.9
	별거	3	0.5
	사별	13	2.2
	기타	8	1.3

주거 형태	부모님/친척/형제등 과 함께 거주	395	66.6
	자취 및 하숙	134	22.6
	동성 친구와 동거	7	1.2
	이성 친구와 동거	5	0.8
	기숙사	49	8.3
	기타	3	0.5
	월 생활비(용돈)	30만원 이하	246
31~50만원		262	44.2
51~70만원		57	9.6
71만원 이상		24	4.0
종 교	불교	95	16.0
	기독교	152	25.6
	천주교	69	11.6
	무교	267	45.0
	기타 종교	5	0.8

## 2. 측정 도구

### 1) 혼전 동거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문을 작성하였다. 동거할 기회가 있다면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의향을 묻는 문항과, 각 경우의 이유에 관한 문항을 포함 하였다. 또한 동거 경험 여부를 묻고, 동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동거 횟수, 동거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교제 기간, 동거 기간, 동거 이유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 하였다. 동거 이유의 경우 복수 응답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선택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월 생활비, 종교,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 시켰다.

### 2) 사랑유형 척도 (Love Attitude Scale)

사랑유형 척도는 Hendrick 과 Hendrick(1986)이 Lee(1973)의 검사를 기반으로 개발한 ‘사랑의 척도(love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사랑유형을 각각 7문항으로 측정하여 총 42개의 문항을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하위척도 당 최저 7점에서 35점까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랑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척도를 응답자의 사랑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척도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교제 중인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완성하도록 요구되어 지나 이성교제 경험은 있지만 현재 교제 중이 아닐 경우 최근의 데이트 파트너를 생각하며 완성하도록 한다.

총 42개 문항 중 1-7번 에로스, 8-14번 루두스, 15-21번 스토르계, 22-28번 프래그마, 29-35번 매니아, 36-42번 아가페 경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에로스, 루두스, 스토르계, 프래그마, 매니아, 아가페

의 각 하위 척도별 .74 , .43, .65, .76, .75, .88이었다.

### 3) 성인애착 척도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성인애착 척도는 Brennan(1998)이 제안했던 ECRS(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을 사용하였다. 1998년 Brennan, Clark과 Shaver는 60개의 애착 관련 질문지(323문항)를 모아 메타 분석을 통해 2개의 하위척도(각18문항)로 구성된 ECRS(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Bartholomew의 애착 4범주 유형의 수직과 수평축을 구성하는 자기모형과 타인모형의 요인이 각각 애착관련 불안과 애착관련 회피로 규정하였고 이는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즉 회피차원과 불안차원 모두 낮으면 안정형, 회피차원이 높고 불안차원이 낮으면 거부형, 회피차원이 낮고 불안차원이 높으면 의존형,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이 모두 높으면 두려움 형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회피차원 .94, 불안차원 .91로 보고되었고(Brennan et al, 1998), 국내연구에서는 황경옥(2001)이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회피차원 .60, 불안차원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불안차원 .88, 회피차원 .75였다.

[표2 ] 성인애착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불안차원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88
회피차원	1, 3*, 5, 7,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75
전체	36문항	

\*역채점 문항

#### 4) 성태도 척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Gaston, Weed & Jensen(1996)의 연구를 토대로 이정은 (1998)이 제작하여 사용한 26문항 중 11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 태도에 대한 허용성 정도와 비허용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 수록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5)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Scale)

본 연구에서 동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hoades(2007)가 개발한 동거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에 번안된 것이 없어, 본 연구자 번역한 후 임상 심리전문가이자 박사인 지도교수가 검수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Likert 척도이며, 3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동거 찬성’, 두 번째는 ‘동거 반대’, 세 번째는 ‘인습’ 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인습’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 개발자와 논의 후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첫째로 동거가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을 역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동거에 허용적이라고 해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 구분시 사용하기 위해 계산 된 총점의 33.3%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점수를 나누고, ‘상’은 동거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 ‘중’은 ‘중립적’, ‘하’는 ‘비허용적’이라고 동거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였다. Rhoades(2007)의 연구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하위척도 ‘동거 찬성’는 .70 , ‘동거 반대’ 가 .72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동거 찬성’은 .90 , ‘동거 반대’ 가 .82 였다.

[표 3 ]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동거 찬성	1,4,5,11,16,20,22,24,28	9
동거 반대	2,6,9,13	4
전체	13문항	

#### 6)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 결혼 만족도는 척도는 Olson, Fournier와 Druckmaen(1982)에 의해 개발된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12개 하위요인 중 부부만족도 요인을 김선미(1995)가 번안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문지로 수정한 부부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NRICH는 기혼 부부용으로, 부부와 커플관계 사정 도구로 결혼향상이나 결혼상담에 관심이 있는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부부관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한다.

이 질문지는 ‘부가 모에 대해 가지는 평소 생각’ 10문항, ‘모가 부에 대해 가지는 평소생각’ 10문항을 자녀에게 응답하게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마다 ‘거의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평가하였다. 이때 응답한 각 점수들을 합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 만족도로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3,5,6,9)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77 어머니의 경우 .88이었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다.
2. 동거 태도에 따른 성 태도 및 부모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주요 변인들의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과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인들의 성별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 결과 I

### 1.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

#### 1)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 (N=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년, 부모 결혼 상태와 용돈과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가 58.8%(N=20), 여자가 41.2%(N=14)였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20.6%(N=7), 2학년이 35.3%(N=12), 3학년이 20.6%(N=7), 4학년이 23.5%(N=8)로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비율로 분포 되어있었다. 부모결혼 상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0.6%가 '혼인 후 지속됨'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이혼'이 11.8% , '별거'가 2.9%, '사별'이 2.9%를 차지하였으며 '기타'가 5.9%였다. 한 달 생활비(용돈)의 경우 '31~50만원'라고 응답한 사람이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만원 이하' 가 29.4%였고, '51~70만원'이 2.9%였다. '71만원 이상'라고 응답한 사람은 8.8%였다. 종교는 '무교'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23.5%였으며, '불교'가 17.6% 였다. '천주교'는 8.8%였으며, '기타 종교'가 2.9% 였다.

[표 4 ]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사례수(N=34)	%
성 별	남성	20	58.8
	여성	14	41.2
학년	1 학년	7	20.6
	2 학년	12	35.3

	3 학년	7	20.6
	4 학년	8	23.5
결혼 상태 (부모)	혼인 후 지속	24	70.6
	이혼	4	11.8
	별거	1	2.9
	사별	1	2.9
	기타	2	5.9
월 생활비(용돈)	30만원 이하	10	29.4
	31~50만원	19	55.9
	51~70만원	1	2.9
	71만원 이상	3	8.8
종 교	불교	6	17.6
	기독교	8	23.5
	천주교	3	8.8
	무교	15	44.1
	기타 종교	1	2.9

## 2) 동거 횟수 및 동거기간

동거 경험이 있는 34명을 대상으로 동거 경험 횟수와 동거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동거 횟수의 경우 ‘1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3회’ 라고 응답한 사람은 17.6% 였고, ‘4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9%였다. 동거 기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2%가 ‘3~6개월’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3개월’이 26.5% , ‘6~12개월’이 20.6%, ‘12~24개월’이 2.9%를 차지 하였으며 ‘24개월 이상’은 응답자가 없었다.

[표 5] 동거 횟수 및 동거 기간

	구분	사례수 (N=34)	%
동거 횟수	1회	26	73.5%
	2회~3회	6	17.6%
	4회 이상	2	5.9%
동거 기간	1~3개월	9	26.5
	3~6개월	14	41.2
	6~12개월	7	20.6
	12~24개월	1	2.9
	24개월 이상	0	0

### 3)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체 기간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체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동거 전 교체 기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5.3%가 ‘1~3개월 후’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6개월 후’가 23.5% , ‘6~12개월 후’가 17.6%, ‘12~24개월 후’가 11.8%를 차지하였으며 ‘24개월 후 이상’은 5.9%였다. 동거를 한 이유의 경우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서’가 23.5%였고,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가 11.8%였다. ‘데이트시 편리함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은 5.9%였으며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결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가 각 각 2.9% 였고 '시대가 변해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기 때문에' 에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표 6 ]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제 기간

구분		사례수 (N=34)	%
동거 전 교제 기간	1~3개월 후	12	35.5
	3~6개월 후	8	23.5
	6~12개월 후	6	17.6
	12~24개월 후	4	11.8
	24개월 후 이상	2	5.9
동거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	15 (m=7, f=8)	48.4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서	8 (m=5, f=3)	25.8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4 (m=4, f=0)	12.9
	데이트 시 편리함 때문에	2 (m=1, f=1)	6.5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1 (m=1, f=0)	3.2
	결혼 할 사이 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 (m=0, f=1)	3.2
	시대가 변해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기 때문에	0	0

#### 4) 동거 의향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동거 할 기회가 있을 경우 동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5.3%(N=29)은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4.7%(N=5)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5명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갈

등을 겪기 싫어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각 각 2명이 응답하였고,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인 것 같아서가 1명이었다.

## 2.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성

### 1)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비 경험 집단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에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사랑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거 비경험 집단의 경우 동거에 대해 비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며, 동거 의향에 있어서는 ‘동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거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랑유형에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36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루두스와 아가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기대빈도가 낮아 통계적 문제로 인해 제외시켰다. 분석에 쓰인 총 수는 동거한 경험이 있는 집단 30명, 동거 비경험 집단 33명으로 총 63명이었으며, 분석 결과 두 집단과 사랑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6.505^{***}$ ,  $df=3$ ). 결과는 [표 7]와 같다.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사랑유형은 에로스 - 매니아- 스토르케 - 프래그마 순이었고, 동거 반대 집단에서는 프래그마- 스토르케 -에로스-매니아 순이었다. 동거 경험 집단의 경우 에로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고, 동거 비경험 집단의 경우 프래그마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 동거 경험 유무 따른 사랑유형

	동거 경험 집단	동거 비경험 집단	전체	
사랑유형	에로스	12(19.0%)	3(4.8%)	15(23.8%)
	스토르케	6(9.5%)	5(6.3%)	10(15.9%)
	프래그마	3(4.8%)	24(38.1%)	27(42.9%)
	매니아	9(14.3%)	2(3.2%)	11(17.5%)
계	30(47.6%)	33(52.4%)	63 (100.0%)	
$\chi^2$	26.505***			
df	3			

\*\*\* $p < .001$

## 2) 동거 경험 집단과 동거 비 경험 집단 간의 성인애착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성인 애착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거 비 경험 집단의 경우 동거에 대해 비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며, 동거 의향에 있어서는 ‘동거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동거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랑유형에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36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분석에 쓰인 총 수는 동거한 경험이 있는 집단 34명, 동거 비경험 집단 36명으로 총 70명이었으며, 두 집단의 성인애착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인애착

		동거 경험 집단	동거 비경험 집단	전체
성인애착 유형	안정형	11(20.8%)	7(13.2%)	18(34.0%)
	몰두형	3(5.7%)	6(5.4%)	9(17.0%)
	거부형	3(3.7%)	9(7.2%)	12(22.6%)
	두려움형	4(5.5%)	10(8.5%)	14(26.4%)
계	34(48.6%)	36(51.4%)	53 (100.0%)	
$\chi^2$	5.410			
df	3			

### 3) 동거 경험 대학생 집단과 동거 비 경험 대학생 집단의 성태도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 집단과 동거에 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거 경험집단이 비 경험 집단에 비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 차이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동거 경험 집단 (n=33)	동거 비경험 집단 (n=35)	
성태도	42.00(7.34)	35.06(8.64)	3.562**

\*\* $p < .01$

## VI. 연구 결과 II

### 1.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거에 대한 태도 및 혼전 동거에 의향과 이유를 조사하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 중립적, 비허용적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인 대학생이 35.2%(N=209), 중립적인 대학생이 28.2%(N=167), 비허용적인 대학생이 30.2%(N=179)였다. 동거의향을 묻는 질문에 기회가 생기면 동거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2%(N=268)였으며, 안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54.5%(N=323)였다. 각 각의 이유는 아래의 [표 10]에 정리하였다.

[표 10] 동거 의향에 따른 이유

구분		사례수 (N=268)	%
동거 의향 있는 경우 그 이유 (N=268)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서	78	13.2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	77	13.0
	결혼 할 사이 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74	12.5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5	0.8
	데이트 시 편리함 때문에	9	1.5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5	0.8
	시대가 변해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기 때문에	11	1.9
구분		사례수 (N=307)	%
동거 의향 없는 경우	결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55	9.3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인 것 같아서	29	4.9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서	80	13.5
	동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65	11.0
그 이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14	2.4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윤리적 신념 때문에	35	5.9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	0.5

## 2.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 1) 동거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대학생 집단과 반대하는 대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표 11]에 제시하였다. 동거에 찬성하는 집단은 동거에 대한 태도를 ‘허용적, 중립적, 비허용적’ 3수준으로 나누어 ‘허용적’에 속하며, 동거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할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대하는 집단 역시 동거 태도를 앞에서와 같이 3수준으로 나누어 ‘비허용적’에 속하며, 동거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동거를 찬성하는 집단이 반대집단에 비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동거 반대집단과 동거 찬성 집단간의 성태도 차이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동거 반대 집단 (n=154)	동거 찬성 집단 (n=142)	
성태도	33.00(9.50)	43.97(6.86)	-11.314***

\*\*\* $p < .001$

## 2)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태도의 차이

동거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표 12]에 제시하였다.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동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남 (n=254)	여 (n=328)	
동거에 대한 태도	55.63(15.38)	52.44(13.88)	2.623**

\*\* $p < .01$

## 3)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 만족도와 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 결혼 만족도는 구체적으로 아버지 결혼 만족도와 어머니 결혼 만족도를 각각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상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결혼 만족도와 동거에 대한 태도,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동거와의 태도 사이의 상관은 둘 다 부적상관이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동거에 대한 태도와 부모 결혼 만족도

	부 결혼 만족	모 결혼 만족	동거 태도
부 결혼 만족도			
모 결혼 만족도	.845**		
동거 태도	-.074	-.056	

\*\* $p < .01$

## VI. 논의 및 제언

### 1. 결과 논의

연구 1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동거를 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n=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5년 우남식의 연구에서 동거 경험이 5.7%였던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넷 응답의 경우 부득이 하게 개인정보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현재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로 조사 한 경우 인터넷 응답의 경우 보다 동거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더 높았다(설문지 응답자의 약 8.3%가 동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동거 경험이 있는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남자가 58.8%(N=20), 여자가 41.2%(N=14) 였으며, 동거 횟수의 경우 ‘1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3회’ 라고 응답한 사람은 17.6% 였고, ‘4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9%였다. 동거 기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2%가 ‘3~6개월’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3개월’이 26.5% , ‘6~12개월’이 20.6%, ‘12~24개월’이 2.9%를 차지 하였으며 ‘24개월 이상’은 응답자가 없었다. 따라서 동거 기간은 대부분 1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보이며, Brown & Brooth 연구(1996)에서 약 절반 정도의 동거자들의 동거 관계는 결혼으로든 헤어지든 2년 끝이 난다고 한 것보다 기간이 절반 가량 짧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 기간이

1년 안에 끝이 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결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나, 빠른 기간 안에 종결되고 2년 이상 유지하는 커플이 없었다는 점은 결혼 보다 확실성이 덜한 관계라는 종전의 연구(Bumpass, Sweet, & Cherlin, 1991)를 지지하고 있다.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동거 할 기회가 있을 경우 동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5.3%(N=29)은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4.7%(N=5)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5명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갈등을 겪기 싫어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각 각 2명이 응답하였고,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인 것 같아서가 1명이었다. 이는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일부는 동거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동거 이유와 동거 전 교제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동거 전 교제 기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5.3%가 ‘1~3개월 후’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6개월 후’가 23.5% , ‘6~12개월 후’가 17.6%, ‘12~24개월 후’가 11.8%를 차지하였으며 ‘24개월 후 이상’은 5.9%였다. 즉 대부분의 동거 커플들이 동거를 결정하는 시기는 매우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동거를 한 이유의 경우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서’가 23.5%였고,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가 11.8%였다. ‘데이트시 편리함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은 5.9%였으며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결혼 할 사이 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가 각 각 2.9% 였고 ‘시대가 변해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기 때문에’ 에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즉 동거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성향을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 허은주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의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동거를 경험한 남학생은 사랑해서(46.2%),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서(30.8%), 혼자 있기 싫어서(15.4%), 어차피 결혼 할 사이이기 때문에(7.7%) 순이었고, 여학생은 사랑해서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각각(28.6%)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기 싫어서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가 각각(14.4%)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8.6%로 동거의 동기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거에 대한 이유들을 대상으로  $\chi^2$ 검증을 실시하여 성차를 살펴본 결과 동거하는 이유에 대한 성차는 없었다.

다음으로 동거경험이 유무에 따른 심리적 특징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사랑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과 사랑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26.505^{***}$ ,  $df=3$ ) 따라서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 간의 사랑유형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지지되었다. 사랑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사랑유형은 에로스 - 매니아- 스토르게 - 프래그마 순이었고, 동거 반대 집단에서는 프래그마- 스토르게 -에로스-매니아 순이었다. 각각 두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동거 경험 집단의 경우 에로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고, 동거 반대 집단의 경우 프래그마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랑유형과 성인애착에 대한 노유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이었던 대학생들의 사랑유형이 에로스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 경험 유무와 성인애착에 대한 연관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지만,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가장 높은 비율의 사랑유형이 에로스였고, 특히 '루두스' 유형이 전혀 없었던 것은 Macklin(1972)의 연구에서 동거하는 이유 중 다

음과 관련한 대목에서 일치한다. "동거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자 하고 피상적인 '데이트 게임'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큰 대학교에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결혼제도의 의문이 확산되어 있고 영속적인 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의 개인적인 성숙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헌신 및 결심을 미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일찍 성숙하는데 결혼까지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커뮤니티가 동거를 인정하고 쉽게 하도록 한다. 동료 그룹의 지지와 충분한 기회가 있고, 인간은 사랑을 주고 받고 자 한다면, 커플들이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즉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성 관계에서 유희적이고 게임적인 사랑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다.

둘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성인 애착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성인애착 유형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 간에 성인 애착 유형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성인애착 유형의 분류 대신에 성인애착을 불안 차원 회피차원으로 분리하여  $t$  검증하였을 때에는 불안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회피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에 비해 회피성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혹은 동거에 반대하는 집단이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회피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거에 경험이 없는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거 경험집단이 반대집단에 비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거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의 성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연구 2에서는 동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거 의향을 물어 보았다. 한국 가정사역연구소(2002)의 동거연구에서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이(53%) 반대하는 사람(47%)을 앞질렀으며, 우남식(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62% 였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기회가 생기면 동거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2%(N=268), ‘안 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54.5%(N=323)로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적기는 하였으나, 단순한 동거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의향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정확한 현재 대학생들의 실태를 알려줄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어서’ 13.2% 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가 13.0%,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시험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2.5%였다. 실제 동거 하는 커플들의 이유와 비교해 볼 때, 동거 하는 커플들이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였던’ 반면, 동거 의향 있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3가지 경우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서였다.’

연구 2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대학생 집단과 반대하는 대학생 집단 간의 성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역시 동거를 찬성하는 집단이 반대집단에 비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둘째, 동거에 대한 태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거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동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거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거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결혼 만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동거 유무에 따른 부모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나 차이가 역시 없었다. 하지만, 동거라는 행동을 부모 변인과 관련하여 동거 경험 유무와 부모 결혼 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chi^2=14.295^{***}$ ,  $df=1$ ) 부모의 결혼 만족도의 요인보다 이혼, 사별, 별거와 관련된 부모 결혼 비지속 요인이 동거 경험과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거 경험집단에서 부모 결혼 상태가 ‘비지속’이었을 경우, 부모 이혼이 4명, 별거가 2명, 사별이 1명, 기타가 2명으로 이혼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혼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연애관계시에 흥분과 취약함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에 기름을 부은 듯 한 열정적인 사랑 (passionate love)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왔다(Lauer & Lauer, 1991; Wallerstein, 1985; Wallerstein & Blakeslee, 1989). 특히, 연애 초기 단계에서 이혼가정의 자녀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열정적 사랑’을 하고, 관계가 발전하면서는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와 ‘열정적인 사랑’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atfield & Sprecher, 1986). 또한 이혼한 부모와 미혼 자녀의 커플관계에 관한 연구(Susan E. Jacquet and Catherine A. Surra, 2001)에 따르면 이혼한 가정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일 경우 사랑유형에 있어서 ‘열정적 사랑’ 유형을 갖고 있다는 가설이 더 크게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부족하여 성차는 확인 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따라서 동거경험이 있는 커플의 부모 결혼 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 사랑유형이 ‘에로스’였다는 점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욱 지지된다. 또한 연애 초기 단계에서 특히 열정적 사랑이었다는 점은, 동거 전 교제 기간에 있어서 1~3 개월 이후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했음을 볼 때, 동거 하는 커플들이 이러한 심리적 특성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동거 양상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는 시기 없이 상대방에게 빠른 시일 안에 몰입하고 열정적 사랑에 빠져, 동거를 결정하여 이후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안에 헤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들이 초기 청년기 단계에 있음을 상기할 때, 이 시기의 사랑 경험은 생애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 2. 제 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 일부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돌렸고, 일부는 인터넷 강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이메일로 설문 응답을 받았고, 자신의 신상정보의 기록으로 인해 연구자가 돌린 설문에 비해 동거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적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사법을 택하는 것은 제안한다.

둘째,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가 국내실정에 맞게 제작된 것이 없어 추후연구에서는 동거에 대한 태도와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거를 연인사이에서 하는 경우로만 국한시켰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약 동거가 유행 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이성간의 동거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연구 뿐 만 아니라, 일반 성인 집단 역시 혼전 동거가 많을 것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혼전 동거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혼전 동거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기에,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밝혔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혼전 동거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송정아(2006). 대학생들의 동거 인식에 관한 조사. **미간행 동거 실태 조사 보고서**
- 우남식(2005).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조선일보(2007.07.21). 10명 중 한명이 동거... 요즘 캠퍼스 커플 떼떼하게 한 방 쓴다. **통판 B8면 기고자 김영민,정세영,정윤정**
- 한국가정사역연구소(2002). 동거의 실태 조사 연구.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제6권, 34-51.**
- 한성현(2007). 올바른 동거문화 정립. **한국사회문제연구, 제9권, 16-32.**
- 허은주(200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Arata, C. M. & Lindman, L.(2002). Marriage, child abuse, and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9), 953-971.*
- Axinn, W. G & Thornton, A.(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cohabitation and divorce: Selectivity or causal influence? *Demography, 29(3), 357-374.*
- Axinn, W. G., & Thornton, A. (1993). Mothers, children, and cohabitati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attitudes and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233-246.*
- Bennett, N. G., Blanc, A. L., & Bloom, D. E. (1988). Commitment and the modern union: Assessing the link between premarital cohabitation and subsequent marital sta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127-138.*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 1171-1197.*
- Booth, A. & Johnson, D. R. (1988).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success. *Journal of Family Issues, 9, 255-272.*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Routledge: London.
- Brown, S. I., & B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68-678.
- Brown, S. L. (2000). The effect of union type on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among cohabiters versus married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241-255.
- Bumpass, L. L., Sweet, J. A. & Cherlin, A. (1991).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13-927.
- Bumpass, L. L. & Sweet, J. A. (1989). National estimates of cohabitation. *Demography, 26*, 615-625.
- Clarkberg, M. E., Stolzenberg, R. M., & Waite, L. J. (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tion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 609-634.
- Clarkberg, M. E. (1999). The price of partnering: The role of economic well-being in young adults' first union experiences. *Social Forces, 77*, 945-968.
- DeMaris, A. & MacDonald, W. (1993).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instability: A test of the unconventionalit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99-407.
- Fowers, B. J., Montel, K. H., & Olsen, D. H. (1996). Predicting marital success for premarital couple typ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22(1)*, 103-119.
- Fowers, B. J. & Olsen, D. H. (1992). Four types of premarital couples: An empirical typology based on PREPA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10-21.
- George, C. & Solomon, J. (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The caregiving behavioural system. In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J. Cassidy & P. R. Shaver (eds.). New York: Guilford Press.

- Galena H, Rhoades.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cohabiting couple's reasons for cohabitation, relationship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iversity of Denver.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olmes, J. (1986). *Attachment, intimacy, autonomy: Using attachment theory in adult psycho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Horwitz, A. V., White, H. R., & Howell-White, S. (1996b). Becoming married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study of a cohort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895-907.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alil, A. (2002). Cohabitation and child development. In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 Booth & A. C. Crouter (ed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Kelley, H. H. (1983). Love and commitment. In H. H. Kelly, E. Bre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olau, & D. R. Petersen (Eds.), *Close relationships*(pp. 256-314). New York; Freeman
- Kieman, K. (2002).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In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 Booth & A. C. Crouter (ed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Kurdek, L. A. (1991). The relations between reported well-being and divorce history, availability of a proximate adult,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1-78.
- Lauer, R. H., & Lauer, J. C. (1991). The long-term relational consequences of problematic family backgrounds. *Family Relations*, 40, 286-290.
- Manning, W. D. & Smock, P. J. (1994). Why marry? Race and the

- transition to marriage among cohabiters. *Demography*, 32, 509-520.
- Manning, W. D. & Smock, P. J. (2000). First comes cohabitation and then comes marriage? *A research note. Journal of Family Issues*, 23(8), 1065-1087.
- Manning, W. D. (1995). Cohabitation, marriage, and entry into mother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91-200.
- Manning, W. D. (2001). Childbearing in cohabiting unions: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3, 217-223.
- Mastekaasa, A. (1992).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evidence on selection in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901-911.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comb, M. D. (1987). Cohabitation and marriage: A quest for independence and relatedness.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7, 128-159.
- Nock, S. L. (1995). A comparison of marriages and cohabi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53-76.
- Rindfuss, R. R. & VandenHeuvel, A. (1990). Cohabitation: Precursor to marriage or and alternative to being sing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6, 703-726.
- Schoen, R. (1992). First unions and the stability of first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281-284.
- Seltzer, J. A. (2000). Families formed outside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47-1269.
- Smock, P. J. & Gupta, S. (2002). Cohabitation in contemporary North America. In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of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 Booth & A. C. Crouter (ed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Smock, P. 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 Stafford, L., Kline, S. L. & Rankin, C. T. (2004). Married individuals, cohabiters, and cohabiters who marry: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31-248.*
- Teachman, J. D. (2002). Stability across cohorts in divorce risk factors. *Demography, 39(2), 331-351.*
- Teachman, J. D., & Polonko, K. A. (1990). *Cohabitation and marit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9, 207-220.*
- Thoits, P. A. (1995). Identity-relevant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 cautionary ta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72-82.*
- Thomson, E. & Colella, U. (1992). Cohabitation and marital stability: Quality or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259-267.*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 Wu, Z. (1995). Premarital cohabitation and postmarital cohabiting union form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6(2), 212-232.*
- Yamaguchi, K., & Kandel, D. B. (1985).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premarital cohabitation and illicit drug use: An event-history analysis of role selection and rol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530-546.*

## ABSTRACT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As Attitude of Cohabitation in College Student

Kim, Mi-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as attitude of cohabitation in college student. And mo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habitation couples in college students and then tried to find ou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94 college students, and they administered the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Scal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Love Attitude Scale.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test, correlation and  $\chi^2$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 with who have been cohabited and the group with who never cohabited in terms of their love attitude style.

Second,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 with who have been cohabited and the group with who never cohabited in

terms of their adult attachment style.

Thir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 with who have been cohabited and the group with who never cohabited in terms of their attitude about sex.

Forth,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 with who have been cohabited and the group with who never cohabited in terms of their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 부 록

1. 성인 낭만적 애착 척도
2. 사랑 유형 질문지
3.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4. 자녀가 지각한 부모 결혼 만족도 척도
5. 성 태도 질문지

# 설문지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혼전 동거에 관한 태도와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특정개인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며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의 **응답내용은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대학생 혼전 동거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 인지행동 연구실**



지도교수 **채 규 만**

석사과정 연구원 **김 미 현**

◆ 성인 낭만적 애착 척도 (ECRS)

귀하께서는 자신이 배우자나 과거 연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번호에 “√” 해주십시오. 각 문항에 나오는 “파트너”란 과거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연인들이나 현재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파트너에게 내 속의 깊은 감정을 보여주기가 싫다.					
2. (파트너에게) 버림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					
3. 파트너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하다.					
4. 나는 내 (이성)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5. 내가 파트너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난 내 자신이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					
6. 내가 파트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만큼 그/그녀들이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걱정한다.					
7. 파트너가 나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8. 파트너와 헤어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한다.					
9. 파트너들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편하지 않다.					
10. 나는 파트너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그녀도 나에게 대해 그렇게 느끼기를 바란다.					
11. 파트너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실제로는 계속 멀어지기만 한다.					
12. 난 종종 파트너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지만 이런 나의 모습이 그/그녀들을 겁나게 해서 멀어지게 한다.					

13. 파트너들이 나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신경이 쓰인다.					
14. (파트너 없이) 혼자 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5. 내 파트너와 나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편안하다.					
16. 사람들과 매우 가까워지려는 나의 바람은 때때로 사람들을 겁나게 해서 멀어지게 한다.					
17. 파트너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피하려 한다.					
18. 내 파트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다.					
19. 내 파트너와 가까워지는 것은 쉬운 편이다.					
20. 때때로 난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강요한다.					
21. 나는 파트너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22. 나는 파트너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23. 파트너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싫다.					
24. 만약 내가 파트너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다면 난 당황하거나 화가 난다.					
25. 파트너에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26. 나는 파트너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27. 나는 보통 내 파트너와 내 문제와 고민을 이야기 한다.					
28. 파트너가 없을 때, 난 다소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29. 파트너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30. 파트너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옆에 있어 주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31. 파트너들에게 위로와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32. 내가 파트너들을 필요로 할 때, 그/그녀들이 없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33. 내가 힘들 때, 파트너들에게 기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					
34. 파트너들이 나에게 대한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난 정말 기분이 나쁘다.					
35. 안락감과 위로 등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에서 파트너에게 기댄다.					
36. 파트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 사랑 유형 질문지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는 처음 만난 후 서로에게 이끌렸다.					
2. 우리 사이에는 신체적으로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EX.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적 반응)					
3. 우리의 성 관계는 매우 강렬하고 만족스럽다.					
4. 내가 느끼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다.					
5. 우리는 신체적으로 매우 빨리 이끌리게 되었다.					
6.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7. 내 연인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8. 나는 나의 연인에게 약간의 불확실함을 남겨두려고 한다.					
9. 나는 나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연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10. 나는 때때로 나의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1. 나는 사랑의 상처로부터 쉽게 그리고 빨리 헤어날 수 있다.					
12.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한 행동에 대해 내 연인이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것이다.					
13. 내 연인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려고 할 때 나는 약간 물러서고 싶어진다.					
14. 나는 여러 다른 파트너들과 사랑의 게임을 즐긴다.					
15. 나는 실제로 사랑에 빠지고 나서 한참 후에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16. 연인은 먼저 서로를 한 동안 돌보는 마음이 있고난 후에야 사랑을 할 수 있다.					

17. 나는 내가 한 때 애정관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 가장 좋은 사랑은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19. 내 연인과 내가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20. 사랑은 실제로 깊은 우정 관계이고 신비스러운 정서가 아니다.					
21. 나의 가장 만족스러운 애정 관계는 좋은 친구 관계에서 발전된 것이다.					
22. 나는 상대방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해본다.					
23. 나는 연인을 선택하기 전에 내 인생을 주의 깊게 계획하려고 노력한다.					
24.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25. 연인을 선택하는 데에 주로 고려할 것은 그가 내 가족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26. 파트너를 고르는 데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이다.					
27. 파트너를 고르는 데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 직업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28. 누군가와 심각한 관계가 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아이를 가질 경우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유전적 배경이 나의 것과 얼마나 잘 맞을지 알아보려한다.					
29. 내 연인과 나의 일이 순조롭지 못하면 나는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					
30. 사랑이 깨질 때 나는 너무 우울해져서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1. 때로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에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32. 내 연인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 나는 심신이 편치 않다.					
33. 내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다른 것에는 잘 집중하지 못한다.					
34. 내 연인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나는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35. 내 연인이 나를 한동안 무시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관심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때로 어리석은 행동도 한다.					
36. 나는 연인이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한다.					
37. 나는 연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당하려고 한다.					
38.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내 연인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39. 나는 보통 내 연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소망을 기꺼이 희생한다.					
40. 연인이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					
41. 내 연인이 나에게 화가 났을 때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42. 나는 내 연인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할 것이다.					

◆ 동거에 대한 태도 척도

\* 함께 사는 것에 관한 다음 문항들에 대해 일반적인 당신의 태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1 전혀 아니다	2	3	4 보통 이다	5	6	7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그들이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아야 한다.							
2.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3. 아이를 가진 커플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해서는 안된다.							
4.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5. 결혼하기 전에 함께 동거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검증해 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6. 나의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7. 아이를 가진 커플은 동거만 하는 것 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							
8. 파트너들은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동거해서는 안 된다.							
9.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다.							
10. 당신이 약혼하지 않고서 동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11. 누군가와 결혼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과 동거 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12. 결혼 할 계획 없이도 커플들이 동거하는 것은 괜찮다.							

13. 나이 어린 커플은 결혼 하지 않았다면 동거해서는 안 된다.						
14. 아이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결혼을 하든지 동거하든지 상관없다.						
15. 요즘에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커플들은 세부적인 법적 제약 없이도 결혼의 혜택을 모두 누린다.						
16.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혼 생활을 영유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17.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것은 괜찮다.						
18. 동거하는 것은 일종의 결혼 전 단계 중 하나이다.						
19. 동거하는 파트너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다.						
20. 어떤 사람들은 동거하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상대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동거를 통해 발견한다.						
21. 동거를 통한 결혼은 관계에 이로운 점들을 제공한다.						
22. 동거를 하면 오랫동안 전념(헌신)하고 싶은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아이에게는 단순히 동거하는 부모보다 결혼한 부모가 더 낫다.						
24. 동거하는 것은 파트너들이 관계를 검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25. 나는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믿음이 없다.						
26. 파트너들은 장기간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27. 동거하는 것은 연애와 결혼 사이의 전형적인 단계이다.						
28. 상대방과 먼저 동거 없이 결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 부모 결혼만족도 질문지

다음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떠올린 후, 귀하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머니로써 우리들을 잘 보살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2.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3.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나 평소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다.					
4.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 내리실 때 그 결정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다.					
5.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돈 쓰는 용도에 대해 의논할 때 의견이 달라서 불만입니다.					
6.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쓰기를 바라십니다.					
7. 아버지는 휴일에 어머니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다.					
8.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는 애정에 만족해 하십니다.					
9. 아버지는 외가댁 친척이나 어머니의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모임을 불편해 하십니다.					
10. 아버지는 종교로 인해 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잘 보살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2.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3.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나 평소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다.					
4.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 내리실 때 그 결정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다.					
5.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돈 쓰는 용도에 대해 의논할 때 의견이 달라서 불만입니다.					
6.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쓰기를 바라십니다.					
7. 어머니는 휴일에 아버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다.					
8.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는 애정에 만족해하십니다.					
9. 어머니는 친가댁 친척이나 아버지의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모임을 불편해 하십니다.					
10. 어머니는 종교로 인해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					

◆ 성 태도 질문지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오랫동안 사귀 이성 친구 간에 성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 이성과의 성관계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3. 서로 오래 사귀 이성 친구 사이라면, 상대방이 원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					
5.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 여러 가지 위험(임신, 에이즈, 성병 등)에도 불구하고, 내 또래 친구들이 성관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7. 혼전 성관계를 한다면, 앞으로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8.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누군가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9.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거나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10. 임신하지(임신시키지) 않았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1. 피임만 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해당되시는 곳에 체크하시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 (    ), 여 (    )

3. 귀하의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님/친척/형제와 함께 거주    ② 자취 및 하숙  
③ 동성의 친구와 동거    ④ 이성 친구와 동거    ⑤ 기숙사    ⑥ 기타

5. 만일 귀하에게 이성 친구(애인)와 동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거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연애중이 아니어도 미래를 생각하며 응답하시면 됩니다.)

① 할 것이다. (6-1 문항에도 응답해 주세요)  
② 안 할 것이다. (6-2문항에도 응답해 주세요)

5-1. 동거를 할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만 택하여 주세요.

①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  
②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어서  
③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④ 데이트시 편리함 때문에  
⑤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⑥ 결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시험삼아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시대가 변해서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기 때문에

기타- 위의 문항 중 마음에 드는 문항이 없다면 내용을 적어 주세요

( )

5-2.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만 택하여 주세요.

① 결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②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인 것 같아서

③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갈등을 겪는 것이 싫어서

④ 동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⑥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윤리적 신념 때문에

⑦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⑧ 기타- 위의 문항 중 마음에 드는 문항이 없다면 내용을 적어 주세요

( )

6. 귀하는 사귀는 사람과 동거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현재 동거중이다

6-1. 있다면, 그 횟수는?

① 1회    ② 1회 이상~ 3회 미만    ③ 3회 이상

6-2. 현재 동거 중이거나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은?

\*동거란 일주일에 5박 이상 한 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① 1개월~3개월    ② 3개월~6개월    ③ 6개월~1년    ④ 1년~2년    ⑤ 2년 이상

6-3. 이성 친구와의 얼마간의 교제 기간 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까?

① 1개월~3개월 후    ② 3개월~6개월 후    ③ 6개월~1년 후

④ 1년~2년 후    ⑤ 2년 이상 후

6-4. 동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